

새로운 조경수 53

- 병아리꽃나무 -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병아리꽃나무속에는 병아리꽃나무 단 한종밖에 없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의 표고 700m이하지역

에 분포하고 있다. 병아리꽃나무와 황매화나무는 서로 속(屬)이 다르지만 잎, 가지, 수형(樹形)등이 흡사하여 언뜻 보기에 는 같은 나무로 오해하기가 쉬우며 일본에서는 병아리꽃나무를 흰황매화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병아리꽃나무는 꽃이 희고 꽃잎이 4장이며 잎이 대생(對生)하지만 황매화나무는 꽃이 노랗고 꽃잎이 5장이며 잎이 호생(互生)한다. 생육특성은 내한력

(耐寒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내건력(耐乾力), 내음력(耐陰力), 내염력(耐鹽力)등이 강하여 어떤곳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지만 생육적지는 양지로서 다소 건조하고 점토질(粘土質)의 중성토양(中性土壤)에서 잘 자란다.

조경상으로서의 활용가치

병아리꽃나무는 어딘지 모르게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표 1> 병아리꽃나무

국 명	학 명	일본명	영 명
병아리꽃나무	Rhodotypos scandens MAKINO	シロヤマブキ	Jetb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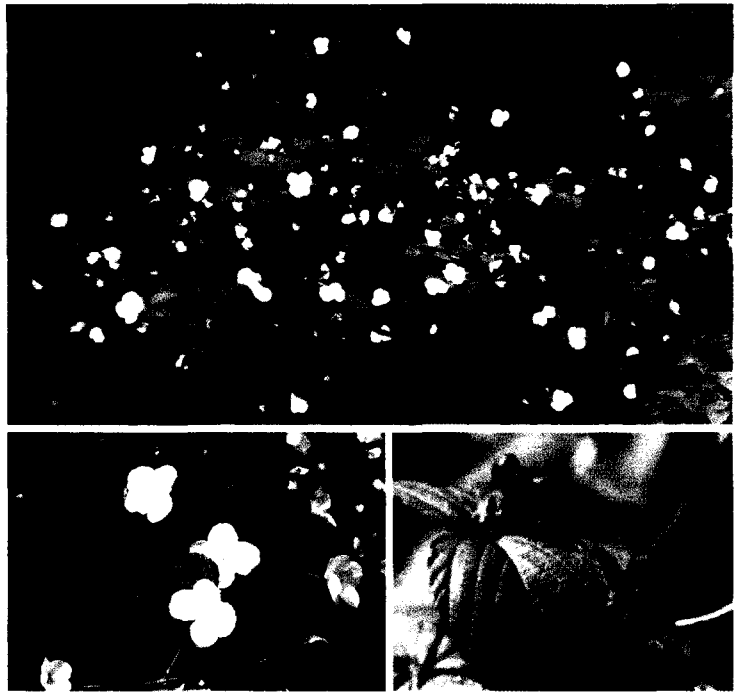
<표 2> 수종별 특성

수종별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병아리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활엽관목으로 수고 2m까지 자람. · 지면(地面)에서부터 가는 줄기가 여러개 나옴. · 가지는 옆으로 퍼지고 끝이 아래로 처침. · 가지는 평활(平滑)하고 털이 없으며 녹색임. · 잎은 대생(對生)하고 난형(卵形) 또는 난상장타원형임. · 잎의 길이 4~8cm, 나비 2~4cm · 장점첨두(長漸尖頭) 원저(圓低)임. · 잎의 표면에 주름살이 많고 뒷면에 털이 있음. · 잎자루의 길이는 3~5mm고 탁엽(托葉)은 빨리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4~5월에 백색으로 피. · 꽃잎은 둥글고 4장이며 지름은 4~6cm. · 새가지 끝에 꼭한 개씩 피. · 한개의 꽃대에 보통 4개의 열매가 달리거나 때로는 1~3개가 달리는 때도 있음. · 열매는 난형이며 길이 8mm정도임. · 열매는 8~9월에 흑색으로 익으며 광택(光澤)이 있음. · 한 개의 열매에 종자가 한 개씩 들어 있음. · 정선된 종자11당 입수는 4800개, 1kg당 입수는 9,200개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 · 우리나라 중부이남 표고 700m이하 지역에 생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지로서 약간 건조한 중성(中性)의 점질토양(粘質土壤)에서 잘자람

나무로 화려하고 찬란하다고 하기 보다는 소담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꽃나무라고나 할까 새하얀꽃이 가지끝마다 한 개씩 밖에 피지 않아 마치 흰 병아리떼가 노닐고 있는 것 같다하여 병아꽃나무란 이름이 붙어 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얀 나비떼가 사뭇히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 나비꽃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조경소재(造景素材)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주로 공원, 수목원, 고궁(古宮)등에 식재되고 있다. 우리 나라 조경의 맹점(盲點)은 지피(地皮)식생조성용으로 전국 어디로가나 철쭉, 개나리, 둥근향나무, 회양목 등 몇몇수종 일색의 조경으로 권태감(倦怠感)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수종들의 대체(對替)용으로 병아리꽃나무가 좋치않을까 생각하며 특히 도로, 철로, 휴게소등의 절토사면(切土斜面)이나 경사면의 조경처리는 병아리꽃나무의 식재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아리꽃나무의 번식

병아꽃나무의 번식은 종자와 삽목에 의하여 종자에 의한 실생묘양성(實生苗養成)은 8월에 열매가 흑색으로 익으면 열매를 가능한 빨리 따야 발아가 잘되며 열매가 너무 익으면 발아가 잘되지 않는다. 채취한 열매는 과육(果肉)을 제거한



위:병아리꽃나무 개화 전경
아래 왼쪽:병아리꽃나무의 꽃과 잎
아래 오른쪽:병아리꽃나무의 열매

후 곧바로 파종을 하다가 젖은 모래와 섞어서 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露天埋藏)을 하였다 이듬해 4월경에 끄집어 내어 m^2 당 55g(100cc)정도 산파(散播)를 하고 1cm정도 두께로 복토를 한 후 건조방지를 위하여 짚을 짧게 썰어서 상면(床面)에 얇게 깔아준다. 발아하는데 1개월정도 걸리고 평균발아율 50%, m^2 당 발아기대본수 250본, 득묘본수 200본 평균묘고 25cm, 상체(床替)는 이듬해 4월경 m^2 당 20~30본 정도로 한다. 삽목은 춘기(4월초, 중순), 하기(7월중, 하순)중 어느시기에 삽목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춘기삽목을 하면 활착율은 더 높일 수 있고 삽수(插穗)는 맹아지(萌芽枝)와 같은 굵은 가

지가 좋으며 삽수의 길이는 10~15cm정도가 되게 조제한 후 안내봉(案内棒)으로 길이 7~8cm정도의 구멍을 뚫고 삽수를 삽입한 후 손으로 흙을 다져서 삽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그리고 춘기 삽목시의 삽수는 전년지(前年枝), 하기 삽목시의 삽수는 당년지(當年枝)를 사용하며 하기 삽목시 삽수의 1/2정도 잎을 따지 말고 남겨야 한다. m^2 당 삽목본수는 200본 정도로 하고 해가림을 설치하여 상토(床土)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체의 방법은 실생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면 된다. **조경수**